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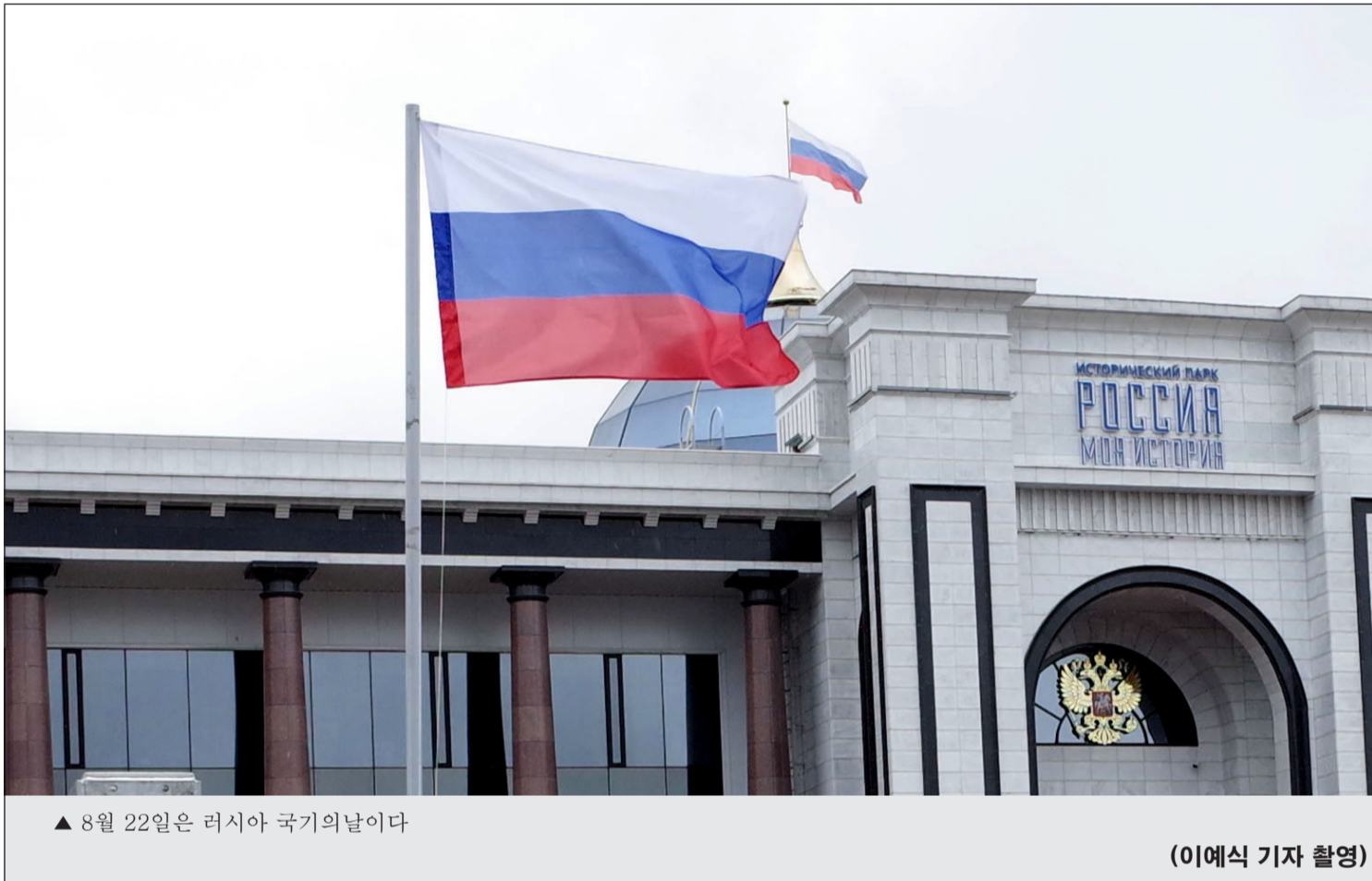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8월 21일(금)
(윤력 7월 3일)
Пятница
21 августа 2020г.
№ 33 (11690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단신

이.파르후트지노브 추념

20년 전 8월20일 헬기 사고는 당시 사할린 주지사였던 파르후트지노브를 수반한 정부 직원들과 승무원들, 총2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부활 성전에서 추도식이 진행된 가운데 비석 헌화식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비롯한 사망자의 유가족들, 주 정부, 주두마,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8월 교육자 회의 준비 중

사할린주 교육부는 교육개발원과 교육품질평가센터와 공동으로 매년 교육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이 회의는 8월25일(화)-26일(수)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리는 가운데 주제는 '지역 교육체계 건설: 미래를 설계하자'이다.

회의에는 주 법무 및 집행 대표, 지방단체장, 교육 분야의 종사자, 학교장, 교육방법론가, 혁신 부문 지도자, 교사, 보충교육 및 유치원 교사,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러시아 국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상징 중 하나인 국기는 풍부한 역사를 가진 조국과 무수한 영웅들의 승리와 업적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는 앞을 향해 추진해나갈 수 있고, 새로운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할린에 러시아의 삼색기는 200년 전 탐험가들이 개양했습니다.



오늘날 국기는 사할린 전역에서 펠릭스이고 있으며, 국내 지역 보전과 국경의 불가침을 체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기 아래 사할린주에는 도시와 마을의 변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주택들의 건설이 이뤄지며, 의료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고 많은 다른 분야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지역이 발전하고, 삶을 위해 좀더 편안한 곳이 되도록 모든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될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러시아 국기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미하일 미슈스틴, 사할린에서 소량의 LNG 생산 개발 지지

미하일 미슈스틴은 알레리 리마렌코가 제안한 소량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개발을 지지했다.

사할린 주지사는 이날 블라고웨센스크에서 총리가 주재한 정부의 극동지역 사회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주지사가 지적한 바로는 현재 극동지역의 가스화 정도는 약 15%인데 액화천연가스 덕에 5년간 이러한 지표를 4배로 증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액화천연가스 소량 생산이 벽지 도시와 마을에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게 한다는 점이 특별히 중요하다. 미하일 미슈스틴은 이 문제에 있어서 주지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액화천연가스는 효율적인 도구다. 극동지역 에너지 분야의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에너지자원부와 공동으로 거시적 지역(макрорегионе)에 액화천연가스 이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개발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좋은 분야다."라고 밝혔다.

사할린주에서는 가스프롬과 공동으로 사할린 전체 가스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가스관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주거지역들에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지사는 "포로나이스크에 연간 10만 톤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건설해야 한다. 액화천연가스의 평균 생산량은 적어서 새로운 산업을 위해 특별한 운송 조건과 특수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사할린에는 석유가스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생산과 서비스를 현지화시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액화천연가스는 천연가스보다 2-3배 비싸서 투자자를 위한 수익성이 있는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며 러시아 연방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출하도록 민간 기업에게 연료를 공급하자는 제안도 되고 있다. 2019년 러시아 액화천연가스의 생산량은 50% 이상 증가해 연간2900만 톤에 달했다. 회의에서 주지사는 몇 가지 문제들을 발의했는데 대통령의 위임으로 오하 지역에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이를 위해 150억 루블리를 신청한 가운데 오하 주민들의 이주 정착을 위해 연방예산에서 65억 루블리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극동지역에서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소규모 지역의 항공 발전에 제동이 걸리는 문제도 거론되었다. 이 석유가격은 러시아 중심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보다도 비싸다는 점인데 이런 문제들을 러시아 연방 정부의 감독이 채택했다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제 8회 한림대 · 사할린국립대학교 상호 방문 국제 학술회의 개최

8월 21일(금) 제 8회 한림대학교와 사할린국립대학교 상호 방문 국제 학술회의를 <유라시아 대륙 한인 디아스포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연대>라는 주제로 한림대학교에서 개최한다. 국제 학술회의는 한림대 일본학연구소·러시아연구소와 사할린국립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림대학교, 재외동포재단, 한국연구재단, 강원도민일보, 디아스포라연구소, 전북대 고려인연구센터가 후원한다.

이번 학술회 발표자들은 3가지 패널로 나누어 발언한다. 첫 번째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문화', 두 번째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보건의료', 세 번째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협력'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보건의료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지속적인 연구 주제인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러 경제 협력에 관한 연구를 심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학술회의에서의 이 세 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COVID-19 전염병 이후 한인 디아스포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모든 당사자들의 연대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 제시를 기대합니다."라고 한림대 최태강 러시아연구소장이 밝혔다.

한국과 사할린에서 순환 개최되는 이 대회는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할린 연구자들은 이번 기회에 화상을 통해 참여한다. 이번 학술회에서 진 율리아 역사학자(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선임 연구원)는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사할린의 다문화 사회 : 일본인, 러시아인, 한국인, 아이누인' 주제로, 김 소피아 경제학자 (사할린 기업인발전기금)는 '사할린 주의 COVID-19 감염 현황 분석' 주제로, 도전식 경제학자(사할린 국립대학교 법경제대학 학장)는 '러시아 극동의 선도개발구역: 현황, 문제,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학술회의에서 한국 현지 연구자들이 사할린 한인 문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이 전했다.

우리 손님

뿌리를 알기 위해 사할린 방문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러시아 역사대학 전문 연구가 김 세르게이



얼마 전 젊은 역사 학자 김 세르게이 페트로위츠(31세)가 자기 뿌리를 더 잘 알기 위해 사할린을 방문했다. 그의 아버지는 사할린 출신으로 배순신 본사 기자는 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세르게이 페트로위츠, 우선 자신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는 1988년 10월에 모스크바에서 태어났고 모모노소브 모스크바 국립대를 졸업하고 조국의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어릴 적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연구하려는 열망이 항상 있어서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 졸업논문은 무엇을 주제로 쓰셨는지요?

- 제가 군사 역사과에서 공부했는데 물론 대조국 전쟁을 많이 연구했고 4학년 무렵 졸업논문 주제를 정해야 했는데 그때 1945년의 극동지역에서의 전쟁(만주, 조선반도, 사할린 및 쿠릴 등)에 관한 주제를 연구하려는데 사실 군사 역사, 전쟁 역사를 군부자들과 많이 군사교육기관에서 연구하거든요. 민간대학이었기 때문에 사회에 관한 주제로 쓰는 게 낫다는 입장에서 생각 끝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인 포로>를 선택했어요. 마침 그 당시 발표된 자료도 있었고 논문 쓰기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 역사학 준박사 논문도 이 주제로 하셨나요?

- 네, 제 박사 논문은 <소련에서

일본인 포로 (1946-1956년)>였어요. 그 당시 이 주제로 연구한 몇 분이 계셨고, 발표된 자료도 있었지만 잘 전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연구가 덜 된 부분이 좀 많아보였어요.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역사와는 조금 거리가 먼 연구소에 취직해서 대학원 박사과정이나 연구자로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때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시간이 좀 흘러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러시아 역사연구대학에 취직하고 2016년에 그 대학 내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준박사를 따냈죠. 현재 계속 러시아 역사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또 모스크바 국립언어대학에서 초빙교수로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 러시아에서 일본인 포로 연구를 많이 하는지요? 이 주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 러시아에서 몇 분이 연구를 하긴 했었어요.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전쟁 포로 송환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주제였습니다. 전쟁 포로들은 나중에 사업가, 가수, 작곡가, 예술가, 시인이 되었거든요. 이들은 자기 사회단체들도 구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돌아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들의 무덤을 찾아야했습니다. '시베리아 역류'(NKVD 수용소의 일본 군인들)는 문학에서 많이 작품으로 발표되었고 이에 관한 연극, 공연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포로 사망자를 찾는 문제는 러일 관계

에서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런 주제로 영화를 찍을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포로에 대한 연구자료가 러시아에 가장 많이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전문가나, 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 소장 기록물을 많이 찾으러 와요. 이걸 위해 러시아어도 많이 배우고요. 이와 관련 외국 학자만 해도 제가 4-5명을 알고 있어요. 학술회에 참가하다 알게 되는 거죠. 일본 한 학술회의에서 한두 번 정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 일본어는 아시지요?

- 조금 알아요. 자습도 하고 과외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 일본인 포로를 연구하면서 남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에 대해서도 잘 아시죠?

- 네, 그럼요. 사실 한인 2000여 명이 일본 군인으로서 소련 수용소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중 장교들도 꽤 있었답니다.

- 고려인 또는 한인들에 대한 연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다음 연구 주제를 박사논문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주제가 박사논문으로서의 비중과 무게를 줄 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 이번 사할린 방문 목적은요? 사할린은 처음이신가요?

- 네, 사할린은 처음이고 방문 목적은 친척 방문, 할아버지 묘지를 찾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이

기 때문에 사할린은 저에게 신기하고 특별한 곳이자 저의 일부이며 그리고 놀라운 역사의 땅이죠. 일본인 연구에 관한 자료도 사할린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아버님하고 같이 왔었거든요. 아버지는 1950년생이시고 레스노에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마카로브, 포로나이스크구역, 돌린스크구역 비코브마을에서 사셨답니다. 학교를 졸업하시고 콤소몰스크-나 아무레 공과대학에 입학하셨고 이곳에서 제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12세 위인 저의 하나뿐인 형은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고 저는 모스크바 출신입니다. 한번도 사할린에 와보지 못했는데 여기 왔더니 집에 온 느낌입니다. 여기 작은 고모님이 계십니다. 친척들이 너무 잘 대해주십니다. 우리는 포로나이스크도 가보고, 네웰스크, 비코브, 오호츠크에 쪽 등 정말 많은 곳을 가보았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다시 오고 싶어요.

- 가족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세요?

- 1910년생이신 친할아버지의 성함은 김동식이었고 힘이 아주 세셨답니다. 사할린에는 강제징용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 때문에 도피하다가 사할린으로 오지게 되셨고 귀국하지는 못하셨죠. 친할아버지는 비코브 탄광에서 일하셨고, 197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생전에 보지 못했어요. 외할머니·외할아버지는 고려인 출신으로 1937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이주 당하셨고, 나중에 다

시 콤소몰스크 지역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얼굴도 못 뵈어요. 제겐 친할머니만 계셨어요. 우리 친할머니는 일본인이셨어요. 운명도 참 불쌍했어요.

친할머니께서 1925년생이셨고 어릴때 어머니를 여의고 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둘 다 다른 가족에 입양되었고 사할린에서 사셨어요. 아버지는 딸들을 인정하기 싫어하신 것 같았어요. 일본인들이 귀국할 때 친할머니는 귀국하지 않으셨고 여동생은 일본으로 갔셨답니다. 아주 나중에 친할머니께서 여동생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친할머니는 우리 친할아버지와 결혼하셔서 슬하에 2남 2녀를 두셨습니다.

2000년도에 저의 아버지께서 친할머니와 큰 고모를 모스크바로 모셔왔습니다. 친할머니는 우리랑 약 5년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큰 고모는 지금도 같이 지내고 계십니다. 작은 아버지는 여기 사할린에서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와서 정말 가족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 사할린에서 좋은 추억도 많이 쌓으셨으니 앞으로 사할린에 자주 오시고 좋은 연구를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 저 모

책 '뚝에 부는 바람' 발표회 홋스크에서 개최

홋스크 설립 150주년을 기념하여 니콜라예브 도서관은 '뚝에 부는 바람'책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고급 종이와 훌륭한 사진들로 구성되어 100페이지가 넘는 다채로운 앨범은 홋스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지역 산업도시와 마을, 도시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몇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홋스크 기념일에 맞춘 출간은 벌써 네 번째이다. 2005년에는 홋스크 형성 135주년을 맞아 '사할린의 바다 관문' 첫 책이 출간되었고, 2010년에 '바닷가 언덕에서'가 출간되었으며 2015년에는 '홋스크. 새로운 날들의 색채'가 출간되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나탈랴 벨로체르콥스카야 시행정부 사회문제 담당 부시장과 엘레나 미헤예와 시 문화관리국장 대행과 알렉산드르 타라소와 '사할린-프리야무르스키 웨도 모스찌' 출판사 사장이 참석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홋스크시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В Холмск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Ветер в паруса"

В библиотеке имени Николаева прошла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Ветер в паруса", посвященная 150-летию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Холмска. Книга выпущена в свет издательством "Приамурские ведомости". Красочный альбом из более 100 страниц благодаря качественной бумаге, отличным фотоснимкам, станет хорошим подарком холмчанам и гостям города. Книга состоит из нескольких разделов, в которых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 городе, селах округа, градообразующ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района.

Это уже четвертая по счету книга, приуроченная к юбилею. Первой стала книга, выпущенная в 2005 году "Морские ворота Сахалина", приуроченная к 135-летию Холмска. В 2010 году в свет вышла книга "На холмах у моря", а в 2015 году "Холмск. Краски нового дня". Собравшихся на презентации поздравили вице-мэр по соци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круга Наталья Белоцерковская, и.о.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культуры Елена Михее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ООО "Изда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 — Приамурские ведомости" Александр Тарас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холм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사할린주 도서관, 사진 공모전 발표

<인간의 모습 속 모든 것은 분명 아름답다.>사진 전시회가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열린다. 이는 책문화의 대중화와 독자의 올바른 독서 방법 조성을 목적으로 안톤 체호브 탄생 1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사진 공모전에는 책과 독서와 관련된 부분의 사진들을 접수하고 있다. <얼굴과 책>, <책과 웃>, <책의 마음>, <책과 사상> 등. 공모 부문들에 대한 규정은 '인간의 모습 속 모든 것은 분명 아름답다. : 얼굴, 웃, 마음, 생각'라는 체호브의 발언에 따라 구성되었다. 응모자는 사진 3장 이하를 제출, 그중 공통된 아이디어로 연결된 연속 사진은 3장-5장을 제출할 수 있다.

공모된 사진들은 <공모전의 주제 적합성, 사진의 품질>, <창작 과제의 독창성과 표현력>, <색채 조화와 복합적인 해법> 등으로 평가 및 심사를 하게 된다.

참가 신청서는 11월10일까지 이메일 주소 chtenie@libsakh.ru 또는 693020, 유즈노사할린스크, 하바롭스카야 거리 78번지에 있는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 독서 센터에서 접수한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библиотека объявила фотоконкурс

Фотоконкурс "В человеке всё должно быть прекрасно..." стартовал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

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и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160-летия Антона Чехова с целью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а читающего человека и популяризации книжной культуры.

На конкурс принимаются фотографии, связанные с процессом чтения и литературой, в четырёх номинациях: "Лицо и книга", "Книга и одежда", "Книжная душа", "Книга и мысли". Номинации конкурса организова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высказыванием героя Чехова: "В человеке всё должно быть прекрасно: и лицо, и одежда, и душа, и мысли...".

Один автор может предоставить не более 3-х фотографий, в том числе серию снимков объёмом 3-5 фотографий, объединённую общим замыслом.

Фотоработы будут оцениваться по следующим критериям: Соответствие теме конкурса и качество снимка;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и выразительность творческой задачи; Грамотное цветовое и композиционное решение.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0 ноя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на электронный адрес chtenie@libsakh.ru или на флеш-носителях по адресу: 693020,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Хабаровская, 78,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центр чтения.

코르사코브에서 댄스행사 열려

8월 14일 '춤추며 살자.'댄스행사가 코르사코브 레닌광장에서 열려 행사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코르사코브의 7개 예술단체가 진행했다.

노년세대의 대표들이 화려한 드레스와 장식한 액세서리, 미소와 춤으로 주변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성공했다. 파티에서는 향구의 주민들에게 왈츠, 블루스, 폴카, 카드리유(남녀4쌍 춤)를 알려주었다. 두 개의 군무는 이 프로그램의 정점을 찍었는데 이 부문에서 예술단과 함께 춤추길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었다.

(8면에 계속)

사할린, 학용품 가격 상승

2020년 7월 사할린 소비자물가지수는 100.5%로 2019년 대비12월에는102.6%였다.

식품 가격은 한 달간 소폭 상승(2019년 12월 대비 3.8%), 비식품은 0.6% 상승(2019년 12월 대비 1.5%), 서비스는 0.9%(2019년 12월 대비 2.6%)로 소폭 상승했다.

7월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이 식품 가격에 영향을 끼쳐 제철 채소는 하락했다.

양배추 가격은 15.4%, 양파 12.7%, 토마토6.1%, 오이 3.1% 하락했고 동시에 가격이 상승한 감자는 14.7%, 오렌지는 5.0%, 포도 4.4%, 비트가 4.3% 올랐다.

그 밖의 조사된 식품 중 가공된 냉동 생선과 냉동 및 냉장의 가공된 연어류, 비가공 연어류는 1.3%-1.4% 하락했고, 냉장 및 냉동 닭, 생선살, 쇠고기 간 등은 1.0% 하락했다.

조사된 모든 곡물류는 실제적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완두콩과 강낭콩은 6.6%, 세몰리나(만카)는4.6%, 귀리와 보리는 4.4%, 메밀은 2.6%, 쌀2.2% 상승했다.

이외 조사된 식품들 중에는 빠 있는 양고기가 5.5%, 생선 통조림은 3.2% 올랐고 흑후추와 통후추와 채소 통조림 및 염장 통조림, 쇠고기 살코기, 연어알, 올리브유, 녹차, 커피 원두, 육류 통조림, 케첩, 마요네즈가 1.0-2.0% 올랐다.

비식품군의 가격은 올라 여성용 여름 자켓이 13.3%, 보석류가 9.0%, 러시아산 면 7.9%, 치약 및 세탁세제는 2.8%, 성인용 가죽 구두 2.0%, 여성 스타킹 2.0%, 담배류는 1.3% 상승했다.

동시에 가격이 하락한 제품은 생화 9.0%, 아동용 비가

죽 구두와 아동용 샌달은 3.5%, 2단 냉장고 2.8%, 노트북은 1.4%로 내렸다.

신학기가 가까워지면서 학생들의 학용품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기록된 가운데

모섬유가 포함된 여아용 치마가 14.3%, 배낭과 책가방이 13.1%, 여아용 치마, 정장, 원피스3.9%, 남아용 와이셔츠 3.5%, 운동복 2.4%, 볼펜 2.3%, 스케치북 1.7% 상승했다.

한 달간 자동차 엔진 연료의 가격은 0.8% 상승하여1리터당 57.01루블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2.0% 상승한 1리터당 52.17루블리, AII-98은 3.4%, AII-95는 2.2%, AII-92는 1.0% 로 올랐다.

2020년6월 연간 물가 상승률은 주택 공공서비스 요금에 영향을 주어 전기요금은 3.8% 인상되었고 공공서비스류 중 고체 폐기물 수거, 난방, 온수는 3.9% 인상, 상하수도 요금은 2.8%, 가스는 두당 1.7%, M³당 1.3% 올랐다.

서비스 비용 중 애완동물 서비스는 4.8%, 의료서비스는 2.2%, 양장 수선은 1.6%, 행사 조직 서비스는 1.5% 올랐다. 물가지수의 변동이 기초식품세트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었다.

사할린주에서 기초식품세트 가격은 2020년 6월 말 월 평균 6800.76루블리로 8.0% (2019년 대비 17.9%) 상승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한 달 만에 5.9% 상승한 6515.89루블리, 코르사코프는 10.9% 상승한 6892.28 루블리, 포로 나이스크 8.3% 상승한7067,10루블리, 오히는 8.3% 상승한 7716,75루블리에 해당됐다고 사할린 통계국이 보도했다.

〈세상의 끝〉 사할린 국제영화제,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와 〈러시아 연방 쿨투라〉 포털 사이트에서 개최

2020년〈세상의 끝〉사할린 국제영화제가 10주년 기념을 맞는다. 축제 조직팀은 행사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사할린주 주민들을 위한 영화들로 진정한 기념일이 될거라 장담했다. 그러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자체 수정이 이뤄졌다. 축제팀과 관련하여 외국 및 러시아의 귀빈의 참가와 흥행 수입, 문화 프로그램 및 직접 대면 교류 등과 관련해 좀더 완전하고, 화려하게 개최하기 위해 2021년으로 〈세상의 끝〉 10주년 기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2020 세상의 끝〉 영화제는 8월21일부터28일까지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축제 주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대형 영화관 〈옥차브리〉와 〈프리미에르〉에서 4개의 프로그램이 편성돼 30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온라인 축제 개최와 전통적으로 축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문답을 진행하기 위해 축제 총감독, 배우인 알렉산드르 아그라노비츠와 프로그램 진행자인 알렉세에 메드베제브를 비롯해 축제 기술감독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찾는다. 강습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처럼 축제에서는 5개 활동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1.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연구소
 2. 〈성공〉 프로듀서의 기술
 3. 〈24/7〉 디자인 기술과 감독
 4. 〈오스트로와 (섬)〉 아동 애니메이션의 기술
 5. 〈오스트로와2.0〉 청소년 애니메이션의 기술
- 강습은 사할린 주민들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영화제작자들에게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사할린의 주민들에게 〈세상의 끝〉 영화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과제가 항상 놓여 있다.

‘러시아 연방 쿨투라’ 새로운 축제 협력이 생긴 덕에 이 모든 추진에 영화제다운 행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20 세상의 끝〉 영화제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러시아 연방 쿨투라〉포털 사이트 특별 홈페이지에는 편성표에 따라 개막식 시청을 하루 전 공식적으로 게시하고 저작권 보유자가 작품을 온라인법상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화 프로그램을 상영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에 특별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가 운영된다. 이 스튜디오에서 매일 생방송으로 2개의 프로그램이 방

송된다. 기본적으로 〈세상의 끝〉 전체 기획이 가진 하나의 공통된 주제는 '영화제작과 인간의 삶의 질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이다.

첫 프로그램은 〈세상의 끝의 히트〉 프로그램을 위한 〈비수도권의 삶〉에서는 수집된 영상들은 각각 전 세계 수도권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통로가 될 전망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 〈시차〉는 지역에서 영화제작자의 삶에 대해 얘기하고, 지역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법, 지역에서 영화를 보는 법, 지구촌적 영화산업의 일원이 되는 법을 설명한다. 스튜디오 운영자들은 연출가, 감독, 정부 대표들, 가장 다양한 방면의 현대적 사회단체의 전문가들이다.

온라인상으로 사할린 주민들과 축제 때 소통할 뿐만 아니라 축제의 한계를 넘어서 러시아 연방의 주민들과 축제와 축제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다.

축제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상에서는 영화 상영 및 일정을 알 수 있다.

〈행사의 수평선〉 프로그램은 올해 축제를 위해 프로그램 지도자들이 선정한 영화들로 영화 간 경쟁은 없지만 전례대로 관람객의 투표가 이뤄지고 우승자에게는 관람객의 호감상을 수여한다.

프로그램들은 6편의 예술 영화와 2편의 다큐멘터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영화는 온라인상으로 상영되는데 예외의 작품은 〈도망친 여자(한국, 홍상수 감독)〉, 〈절호의 시기〉, 〈이념의 비서〉이다.

〈세상의 끝 히트〉프로그램에서는 축제 10년간 관람객 투표 우수작과 =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우수 영화들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8편의 예술영화들로 편성되어 있다. 영화 〈딜다〉, 〈부정맥(아리트미야)〉, 〈테세우스의 배〉는 제외하고 모든 작품이 온라인상에서 상영된다.

〈사할린의 흔적〉 프로그램은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서 올해는 지난해 프로그램의 우수작들을 상영할 계획이다. 이 중 몇 편은 사할린의 영화제작자들의 작품도 있다. 온라인상으로는 몇 편만 상영된다.

프로그램에는 30편의 단편 예술영화와 다큐멘터리가 포함돼 있다. 이들 작품들은 영화제에서 상영되지 않았던 작품이고 사할린의 영화감독들이 사할린에서 촬영하여 제작한 작품들이 상영된다.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뜻밖의 선물

전업작가가 되려고 회사에 사직서를 내기 전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받았다. 이걸로 일년 좀 버티며 열심히 쓰면 어떻게든 답이 나오겠지 나를 계산했다.

서울을 떠나 몇 달은 행복했다. 육십만 원을 주고 산비탈 가까운 옥탑 방을 일년 동안 작업실로 얻었다. 도시락을 들고 아침 숲속을 걸어 출근하며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들었다. 낮잠을 자다 밖으로 나오면 산비탈까지 내려왔던 고라니가 놀라서 도망치기도 했다.

봄에 세운 계획은 가을에 들어맞지 않았다. 새로 낸 책들은 판매가 부진했고 은행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는 메달라 갔다.

떠나온 회사에서 때맞춰 지역 매장을 맡아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왔다. 경제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지만 고심 끝에 거절하기로 했다. 여기서 원점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스스로 떠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내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이번에도 내 결정을 받아들여 주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통장은 바닥이 났다.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제쳐두고 생활비로 쓸 돈도 없어서 걱정이었다. 날씨가 추웠지만 작업실 보일러에 기름을 넣을 돈이 없어서 난방을 하지 못했다. 등산용 버너를 책상 옆에 켜 두고 손가락을 녹이며 글을 썼다. 어디서 오징어 냄새가 난다 싶었는데 손등의 털이 까맣게 타서 힘없이 부스러졌다.

웃다가 뒤끝이 씹쓸해 그만둘 때쯤 전화벨이 울렸다. 예술상을 주겠다는 전화였는데 창피를 무릅쓰고 되물었다. 혹시 상금도 있느냐고.

뜻밖에 큰 상금이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모두 갚고 당분간 생활비로 써도 될 정도였다. 잠시 앉아 있다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을 받게 되었는데 상금을 맞춰 보라고 하자 아내가 조심스레 심분의 일 정도 되는 액수를 말했다. 정답을 들은 아내는 오랫동안 울다가 마지막에 웃었다. 나는 다음날 보일러의 탱크에 기름을 가득 넣었다.

겨우내 아껴 쓰느라 결국 그 기름을 다 쓰지 못하고 산 아래 작업실을 떠났다. 지난 이야기지만 계산을 못하는 사람만이 내릴 수 있던 결정이 내 삶을 바꿔 놓았다. 그때 떠날 수 있어 다행이었고 뜻밖의 선물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그 선물이 아니었다면 쓰지 못했을 책들이 지금 내 책꽂이에 꽂혀 있다. 착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고마울 뿐이다.

광주에서 김남중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 70여명 '눈물의 광복절'



고향땅에서 맞이하는 광복 75주년 기념식

동토의 땅 사할린! 일제 강제징용의 아픔을 이겨내고 부모님의 고향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인 전국에 3천600명이 살고 있다.

사할린 한인들에게 광복절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광복의 기쁨도 있지만 명절의 의미도 있어 광복절이면 부모님 산소에 가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매일신문CEO 스피치아카데미·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회장 하태균)가 주최한 광복 75주년 기념식이 15일 경기도 안산 스마크 레스토랑에서 사할린 동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기념식에서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2세 정순덕 씨는 "예전처럼 자주 찾아가지 못하지만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광복절이면 동포끼리 대한민국 만세를 목놓아 외치며 광복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안산 고향마을 영주귀국자노인회 주훈춘(75세) 회장은 "매년 대구 사람들이 사할린 동포를 위해 행사를 해줘서 고맙다"며 "아리랑을 부르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광복절을 기념할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눈물을 흘렸다.

(출처: 매일신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нимание!!!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на 2020-2021 учебный год.

Начало записи: с 21 августа по 3 сентября 2020 г.

Начало занятий: с 7 сентября 2020 год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возможен переход на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Также всю интересующую Вас информацию вы можете найти на сайте нашего «Центра»: <http://www.sakhalinedu.com>

Публикуем информацию о трех новых проектах НТО "АНТОК"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Москва, президент Чо Гван Чун) и ежег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АНТОК,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осенью 2020 года. Участниками первых трех проектов могут быть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В четвертом проекте (конференция) организаторы рады видеть всех!

1. Конкурс "Лучший ученый года". Проводится по трем номинациям: "Лучший ученый года", "Лучший молодой ученый года", "Лучший специалист года". Окончание приема заявок – 10.09.2020. Ссылка на объявление на сайте – <https://aksts.ru/2020/07/25/annonce-best-young-scientist-2020/>.

2. Олимпиада по математике для школьников. 6 - 9 классы. Дата проведения – 13.09.2020. Окончание регистрации – 07.09.2020. Реально ценные призы. Положение об Олимпиаде доступно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на сайте. Ссылка на объявление на сайте – <https://aksts.ru/2020/08/12/announcement-olymp-aksts-2020/>

3. Конкурс на грантов 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АНТОК-IT-2020. Окончание регистрации на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 01.09.2020. Обучение Web разработке и не только. Срок обучения – 1 месяц.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одход. Грант покрывает 90 % стоимости программы. Подробности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письме на сайте. Ссылка на объявление на сайте – <https://aksts.ru/2020/08/10/announcement-aksts-it-2020/>.

4. XX Юбилейн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Онлайн). Даты проведения 19-21 октября 2020. Срок докладов для сборника до 15.09.2020. Ссылка на объявление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письмо <https://aksts.ru/2020/07/27/annonce-conference-aksts-2020/>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КОНКУРС "ЛУЧШИЙ УЧЕНЫЙ ГОДА"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0 СЕНТЯБРЯ 2020 ГОДА**



НОМИНАЦИИ

- ЛУЧШИЙ УЧЕНЫЙ ГОДА
- ЛУЧШИЙ МОЛОДОЙ УЧЕНЫЙ ГОДА
- ЛУЧШИЙ СПЕЦИАЛИСТ ГОДА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Конкурса состоится в рамках юбилейной XX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с 19 по 21 октября 2020 года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А САЙТЕ
[HTTPS://WWW.AKSTS.RU](https://www.aksts.ru) В РАЗДЕЛЕ "КОНКУРСЫ И ГРАНТЫ"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ОНЛАЙН-ПРОГРАММА "АНТОК-IT-2020"

01 ВЕБ-РАЗРАБОТКА

03 ДЕСКТОПНАЯ РАЗРАБОТКА

02 АНАЛИЗ ДАННЫХ

04 МОБИЛЬНАЯ РАЗРАБОТКА

Реализация IT-проекта по итогу программы с поддержкой наставника



SCIKIT-LEARN ELECTRON
PYTHON ANDROID STUDIO
WORDPRESS REACT CSS
KOTLIN NODE.JS HTML
JAVA JUPYTER
JS VS CODE

Начало программы **7.09.2020**

Длительность **6 недель**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 сентября 2020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а сайте <https://www.aksts.ru>





Олимпиада по математике «АНТОК-2020» для учащихся 6-9 классов ОНЛАЙН

Дата проведения
13.09.2020
в **10:00**
по Московскому времени



Участие в Олимпиаде бесплатное

Регистрация участников до 07.09.2020

Цель олимпиады

Ценные призы

выявить и поощрить талантливых школьников корейской этничности

смартфоны, беспроводные наушники и фитнес браслеты Xiaomi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а сайте <https://www.aksts.ru>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К – в тройке самых сильных кандидатов на пост главы ВТО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торговой полит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К Ю Мён Хи вошла в тройку наиболее сильных кандидатов на высший пост во Всемирной торгов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ТО). В информации на сайте германского фонда Bertelsmann,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 проект Global Economic Dynamics, большинству квалификационных требований для кандидата на должност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ВТО соответствуют Ю Мён Хи из РК, Амина Мохамед из Кении и Тудор Уляновский из Молдовы. Фонд Bertelsmann, основанный в 1977 году, осуществляет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проект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политики, общества и бизнеса и 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и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влиянием.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кандидатов оценивалась на основе их резюме и результатов онлайн-опроса 1.092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ран в ВТО и экспертов.

Проблема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 основная в отношениях с Япони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будет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по устранению давнего источник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разногласий с Японией, пока жертвы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не скажут, что проблема решена «достаточно справедливо».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 видеообращении к народу страны по случаю Дня памяти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14 августа, начиная с 2017 года. Он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данная проблема остаётся главной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Сеулом и Токи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делает всё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мужество 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ь жертв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их достоинства и чести,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Церемония поминовения жертв состоялась в городе Чхонане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По данным историков, не менее 200 тысяч женщин из стран Азии, прежде всего, из Кореи и Китая, подвергались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ексуальному насилию. В РК в живых осталось лишь 17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Южнокорейцы призывают Японию принести искренние извинения и выплатить справедливую компенсацию.

КНДР увеличила ввоз из России медицинских товаров

В июне КНДР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ла ввоз товаров медицинского назначения из России. Об этом 14 августа сообщила американская радиостанция Свободная Азия. По данны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льной таможенной службы, в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в СК было экспортировано медикаментов и другой продукции медицинского назначения на сумму 403 тыс.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40%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месяце. Объ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груза вырос на 21% до 37 тонн.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такая ситуация связана со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в Пхеньяне крупной больницы, которую планируется сдать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к 75-летию основания ТПК, которое отмечается 10 октябр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туризм – новая область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туризм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овую область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изванную помочь ему выйти из тупик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Ли Ин Ён, выступая в в прошлую пятницу на заседании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Он отметил, что туристические обмены могут развиваться в нескольк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встречи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поездк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на Север через третью страну и туры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с посещением двух Кореи. Ранее идею организаци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оездок на Север, которые не нарушают режи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предлож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Данная идея возникла как альтернатива приостановленному в 2008 году проекту посещ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гражданами гор Кымганс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нимает меры к оживлению внутреннего туризм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сообщили о выделении 90 млрд 400 млн вон (76 млн 216 тыс. долларов) на активизацию внутреннего спроса и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времяпровождения граждан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COVID-19. Данные средства, полученные в рамках третьег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ддержку шести областей. Это гостиничный бизнес, туризм, шоу-бизнес, выставки, кинематография и спорт. И так, за счёт данных субсидий 8 млн 610 тыс.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олучат скидочные купоны. Заявки на их получение можно будет подавать поэтапно, начиная с 14 августа. К примеру, с этого дня на сайтах 27 турагентств 1 млн человек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кидочные купоны на проживание в гостиницах. Обладатели купона смогут забронировать номер через интернет со скидкой в 25-34 доллара.

(RKI)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Знаменательная дата: 75 лет со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32)

15 август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азднуют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днако немногие подробно знают какие события стоят за этим знаменательным днем. В серии очерков мне хотелось бы напомнить читателям о тех важных событиях и для Кореи, 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егодняшний очерк начнем с предыстории событий.

В январе 1945 г. руководители трех мировых держав – союзниц по антигитлеровской коалиции – встретились в Крыму в Ливадийском дворце. На встречу с Иосифом Сталиным прилетели президент США Франко Рузвельт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Уинстон Черчилль. Война в Европе подходила к концу, Германия и ее союзники были практически разгромлены, Красная Армия стояла на пороге Берлина и мировым лидерам предстояло решить как будет устроен мир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Рузвельта интересовал важный для его страны вопрос – помощь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обладавшего на тот момент самой мощной армией мира, в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ях с Японией. Напомним, что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до 1945 г. не воевал с восточным соседом, поскольку еще действовал Пакт о нейтралитете 1941 г., да и характер войны с фашистской Германией предполагал без сомнения напряжения всех сил нашей страны. Рузвельт понимал, чт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енные усилия будут сложны дл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оэтому предложил союзнику достойное возмещение – возвращение территорий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которые Россия потеряла в результате неудачных конфликтов с Японией в конце XIX – начале XX в. Договорились Сталин с Рузвельтом и о том, что Корея, которая попала в колониальную зависимость от Японии в 1905 г., получит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увере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Согласно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талина с Рузвельтом, вступить в войну против Японии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должен был через три месяц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в Европе, которое состоялось 8 мая (в СССР как известно уже было 9 мая). 5 апреля 1945 г. совет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уведомило Японию о том, что денонсирует Пакт о нейтралитете и начало подготовку к войне с ней.

В ходе подготовки, которая длилась с мая до начала августа 1945 г., советское командование перебросило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значительные воинские контингенты. Вместе с частями, защищавшим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ую границу, всего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дготовил к военным действиям против Японии 1 757 тыс. чел.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около 1 млн винтовок, 316 тыс. пулеметов, 12 тыс. пушек, 5,2 тыс. танков и



Черчилль, Рузвельт и Сталин договариваются в Крыму о контурах послевоенного мира

5,1 тыс. боевых самолетов. Советские войска были разделены на три фронта –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омандующий маршал Р.Я. Малиновский), 1-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омандующий маршал К.А. Мерецков) и 2-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омандующий генерал армии М.А. Пуркаев) фронты, общее командование сил трех фронтов было возложено на маршала А.М. Василевского.

Советским войскам противостояла Японская императорская армия, которая дислоцировалась в Маньчжурии (Северный Китай),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в Корее. Личный соста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составлял 1,1 млн чел., 6,6 пушек и минометов, 1,2 тыс. танков и 1,9 тыс. боевых самолетов. Командовал Японской армией генерал О. Ямада.

8 августа 1945 г. в 17:00 по московскому времени нарк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В.М. Молотов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ил японскому послу Н. Сато, что с 9 августа Советский Союз считает себя в состоянии войны с Японией. В Токио об объявлении войны узнали в 4 часа утра 9 августа. В тот же день 9 августа 1945 г. около 1 часа ночи по хабаровскому времени передовые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е отряды Красной Армии пересек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границу СССР с Маньчжоу-го (марионеточное прояпон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в Маньчжурии) и вышли на территорию противника. Так началась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1945 г.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Дин Юлия Ивановна, к.и.н.

Всероссийский онлайн конкурс «Марафон талантов»! На экран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ждут талантливых детей со всей России!

«Марафон талантов» среди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 один из самых грандиозных и масштабны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 РОО «Объединение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города Москвы» совместно с Фондом поддержки дет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екта «Многодетная Россия».

«Марафон талантов» дает шанс детям из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выступить на сцен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ремлевский дворца, театра «Геликон-Опера», других заметных концертных площадках страны и на телевидении. В проекте создаются социальные лифты для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и это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талантливым детям стать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попасть на большую сцену и в киноиндустрию.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т уже 6 лет, с каждым годом к участию присоединяются участник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2020 году в связи с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ей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онлайн.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присылают на конкурс видеоролики, в которых демонстрируют свои таланты в четырех номинациях (вокал, хореография, разговорный жанр, народный марафон). Победители конкурса при-

мут участие в съемках концерта, посвященного Дню матери, который планируется к показу на одном из федеральных телеканалов в ноябре 2020 года.

Во время проекта талантливые дети Росс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которые проведут звезды эстрады, кино, театра и телевидения.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ют сертификаты, а главное – уникальные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добиться новых успехов.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оекте и анкета участника размещена на сайте <http://n5://многодетные;семьи1rf/tagajop>

Мы ищем талантливых ребят со всей нашей необъятной Родины!

Подал заявку на Отборочный тур, ты получишь:

- оценку своего творчества от именитых членов жюр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профессионалы мира шоу-бизнеса, заслуженные и народные артисты, звезды эстрады, театра и кино;

- возможность оказаться на экран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 именитый сертификат от звезды;

- новые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развитие мастерства и таланта.

Победители будут определяться осенью 2020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87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PP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здравил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праздником

15 августа исполнилось 75 лет со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С этим празднико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здр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тексте обращения говорится: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Сегодня исполняется 75 лет со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и я поздравля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праздником! События августовских дней 1945 года тесным образом переплетены с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территории стали последними местами боев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шением Крым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оветские войска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на разгром Квантунской армии в Маньчжурии 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для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Наши войска в Маньчжурии разгромили основную группировку японских войск.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вошли части 25 армии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генерал-полковника Ивана Михайловича Чистякова и други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1-го и 2-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фронтов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Тихоокеанским флотом и Краснознаменной Амурской флотилией. Совместно с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они в короткие сроки разбили оккупантов.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пришла весть о том, что японский император издал указ о прекращении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Корея получила долгожданную свобо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Успешные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о многом повлияли и на ход сражений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Благодаря героизму советских солдат и офицеров наша страна вернула некогда утраченные земли.

Корейцы, насильно завезенные на Сахалин, с надеждой и тревогой ждали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ии. После войны они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остаться жить на острове, который стал для них родным домом. За эти год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несли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тесных отношений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ажно сохранить историческую правду о событиях тех лет. Убежден, что большую роль в этом будет играть новая памятная дата. С этого года 3 сентября – День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тал Днем воинской славы России. И это наша общая победа.

События военных лет служат прочной основой для крепкой дружбы между нашими народами. И мы продолжим развивать всесторонние связи на благо нынешних и будущих поколений.

Желаю все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мира, счастья и всего самого доброго! С праздником!».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поддержал предложение о развитии малотоннаж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ПГ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ступил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вопроса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в Благовещенск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ак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егодня уровень газификац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15 процентов. С помощью СПГ всего за пять лет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возможно будет увеличить в четыре раза.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что малотоннаж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позволит развивать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ую энергетику в отдаленных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 Полностью поддерживаю вас в этом вопросе, – сказал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 СПГ – эффективный инструмент,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можно решить проблемные вопросы в сфере энергетик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овместно с Минэнерго будет разработана комплексная программа, чтобы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широк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жиженного газа в макрорегионе. Развитие энергетики – это хорошее поле, на которое можно привлечь инвесто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Газпромом»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грамма полной газификации островов.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куда не придет трубный газ,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СПГ.

– Планир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авода в Поронайске мощностью 100 тысяч тонн в год. Такие объекты нужно создавать и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Мало- и среднетоннаж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сжиженного газа – это новая индустрия, и для нее необходимы особые услови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специаль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конечно, обученный персонал.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ется нефтегазовый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парк, где будет локализовано производство и сервисы, и будут готови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кадры,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словам губернатора, СПГ в 2-3 раза дороже трубного газа,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разработать выгодные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механизмы. Предлагается разрешить частным компаниям поставлять топливо на экспорт с соблюдение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нтере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метим, что, по итогам 2019 года, производство СПГ в России возросло более чем на 50 процентов и достигло 29 миллионов тонн в год.

На совещании с глав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нял еще несколько проблемных вопросов.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была разработана программа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Для этого требуется более 1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Губернатор обратился с просьбой – ускорить выделение 6,5 миллиардов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переселение охинцев.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также была затронута проблема высокой стоимости керосин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что тормозит развитие авиации в макрорегионе. Цена значительно выше, чем в центральной России и соседних странах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Эти вопросы были взяты на особый контро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Сахалинцы поделились опытом борьбы с COVID-19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по инициативе китайских ученых. В дистанционной встрече с академиком Кита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ервого москов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ени Сеченова и медицинские сотрудники дву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спублики Башкортостан.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меры позволи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амом начале создать запас во времени и войти в пандемию подготовленными, создать резерв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подготовить аппаратуру, обобщить и использовать клинический опыт, который к тому времени был накоплен миров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Результатом этой работы на сегодня является нулевая смертность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руководитель островного минздрава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Напомним, первая вспышка инфекции произошла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китайском Ухане. По последним данным, число заразившихся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мире превысило 21 миллион человек из 188 стран.

За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китайские врачи значительно продвинулись в борьбе с этим заболеванием, однако и они признают, что остановить пандемию пока удается больш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граничительных мер.

– Полный запрет на выход их дома заболевшему и членам его семьи – эту меру обязаны неукоснительно соблюдать китайские граждане. В период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власти следят за соблюдением жесткой дисциплины, – рассказал ректор Вэньчжоу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кадемик Ли Цзяюнь.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отметили, что российские врачи смогли добиться низкого уровня смертности от заболеваний, связанных с вирусом. Этот опыт заслуживает изучения. Ведущий китайский вирусолог, академик Чжун Наньшань сообщил, что наши страны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испытания вакцины от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Препарат был разработан Национальным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м центром эпидемиологии и микробиологии имени Гамалеи. Итоги конференции будут включены в перечень тем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в рамках регулярной встречи глав России и Китая.

Напоминаем, для прибывающих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граждан без местной прописки действует правило о предъявлении справки об отсутств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и цифрового пропуска. Ограничительная мера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до окончания прививочной кампании по заболеванию.

Более 350 сахал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бразования готовы к учебному году в очном формат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завершается приемка школ, чтобы с 1 сентября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ернулись за парты. Очное обучение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с соблюдением всех требований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Этот вопрос обсудили на совещании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кануне Дня знаний во все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пройдет тщательная дезинфекция. В новом учебном году школы перейдут на кабинетную систему. За каждым классом закрепят отдельный учебный кабинет, где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се уроки. Все школы обеспечены бесконтактными термометрами, кожными антисептиками, рециркуляторами для обеззараживания воздуха.

– Мы будем встречать День знаний за партами, как это было всегда.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нам пришлось ответить на вызов времени и перейти на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Сегодня школы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имеют доступ к Интернету, но ничто не заменит живого общения между учителем и ребенком,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на подготовку учреждений образования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направлено более 2,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за счет всех источников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Был проведе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школы в селе Новом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и гимназии №1 имени А. С. Пушки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ряда других учреждений образования. На эти средства также выполнил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й и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орудовали пищеблоку, модернизировали учебную базу.

В эт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за парты сядут около 60 тысяч ребят, среди них 6,3 тысячи первоклассников. По традиции в День знаний распахнут свои двери четыре новых

школы: в Корсакове на 330 мест, в Дальнем на 550 мест, для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на 260 мест в Луговом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корпус к СОШ №6 на 480 мес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Это позволит закрыть вопрос второй смены более чем для 1600 ребя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по раннему выявлению колоректального рака

В областном онкодиспансере установлено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рибор поможет сахалинским онкологам проводить своевременную диагностику рака ободочной кишки.

Скрининг будет доступен не только жителям юга Сахалина, но и пациентам из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о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Специальные пробирки для анализа будут доставлены во все медучреждения области. Биоматериал пациенты будут сдавать в лабораторию лечеб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но сами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одятся на базе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диспансера. Пациентов с превышением в пробе гемоглобина пригласят на дальнейшее обследование – колоноскопию.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данн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в медучреждении подготовили отдельное помещение, приобрели эндоскопическую стойку, выдел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ставку анестезиолога. Исследование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в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ях для пациента – под наркозом. Ежедневно здесь планируют принимать от 8 до 10 человек.

– Колоректальный рак является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й патологией во всем мире и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ыходит на лид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 пояснил главный внештатный онколог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Старцев. – В лечении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ключевую роль играет время. Чем раньше врачи смогут обнаружить отклонения, тем выше шансы у пациента на успешную терапию и полное выздоровление. Для этого мы внедряе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скрининговую программу,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выявление онкологии ободочной кишки. Та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казано сахалинцам старше 55 лет – именно на эту возрастную группу приходится пик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Профилактика и лечение рак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ов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й медицины. В области проводится усиле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лужб ранней диагностики, уделяется внимание повышению квалификации медперсонала, пополняется, а также регулярно обновляется парк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аппаратура закупается для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 Укрепление онкослужб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исходит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Борьба с онколог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нац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9 воздушных гаваней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концу этого года

К 6 действующим объектам прибавятся еще 3. Будут восстановлены площадки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и селе Зональное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Также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ую полосу построят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Это позволит 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ысить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в области. Работа по расширению авиацио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островах вед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 Авиация – это один из важнейших элементов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оскольку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региона находятся друг от друга на большом расстоянии. Создаются условия при которых человек сможет быстро и комфортно попасть в любое муницип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 воздуху,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собираемся восстановить всю советскую авиационную сеть. Это поможет в решении многих вопросов, в том числе, связанных с бизнес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м и образованием.

Так, на объектах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и Зональном уже провели инженерно-геодезические изыскания и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начнут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А на посадочной площадке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подготовлено основание для обустройства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вынесены инженерные сети. Сейчас специалисты ведут на объекте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е работы.

Следующий этап – ремонт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садочных площадок в Смирных, Поронайске и на Шикотане. После объекты появятся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западного побережья Сахалина.

Пассажирские перевозки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ять небольшие воздушными судами. Вместимость самолетов – до 19 человек. 2 новые крылатые машины начнут эксплуатировать в регионе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тим,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ют 6 аэропортов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хе, Ногликах, Шахтерске, Курильске, Южно-Курильске. Кроме того, воздушные суда принимают вертодром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и вертолетная площадка на Шикотане. На некоторых объектах сегодня ведутся работы. Так, в Охе строят новую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ую полосу длиной 1600 метров, а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еконструируют перрон, в том числе для установки телетрапов в рамках возведения нового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러 양국 예술공연 소개하는 '온라인 공연주간' 운영

수교 30주년 기념 '2020-2021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맞아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러시아 문화포털사이트와 네이버TV 통해 방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 기념 '2020-2021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8월 11~14일 '한-러 온라인 공연주간'을 운영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김용락)이 공동 주관하며, 러시아에서는 연방 음악·축제 공공기관인 로스콘서트(Rosconcert)가 진행한다.

'온라인 공연주간' 동안 한국은 ▲국립발레단의 '허난설현-수월경화' ▲국립현대무용단의 '비온드 블랙'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아리랑로드-디아스포라'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의 '러시아나잇-프로코피예프&라흐마니노프'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국공립 예술단체의 공연을 러시아 문화포털(www.culture.ru)에 선보인다.

러시아는 네이버 티브이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채널(http://tv.naver.com/korusculture)에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다양한 공연예술 작품을 소개한다.

▲8월 11일에는 비올리스트 '유리 바슈메트와 모스크바 솔로이스츠'의 함부르크 공연 실황 ▲8월 12일에는 유네스코 평화 예술 친선대사인 '가스카로프 민속무용단'의 공연 ▲8월 13일에는 서커스와 뮤지컬을 접목한 '모스크바 뮤지컬 시어터'의 '리버스' ▲8월 14일에는 '모스크바 국립 그젤 무용단'의 창단 30주년 공연 실황을 볼 수 있다. 모든 공연은 오후 5시에 방송되며, '온라인 공연주간'이 끝난 후에도 12월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공연 주간' 외에도 '박경리문학제 계기 온라인 포럼', '모스크바 국제도서전 온라인 참여', '러시아를 만나다' 기획영상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문화교류를



러시아는 네이버 티브이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채널에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다양한 공연예술 작품을 소개한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모스크바 뮤지컬 시어터, 가스카로프 민속무용단, 모스크바 그젤 무용단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은 "이번 비대면 한-러 문화교류 사업은 인적, 물적 교류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문화교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한 문화 공개토론회(포럼), 도서전, 전시회 등 다양한 비대면 문화교류로 한-러 간의 우의와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사흘 이야기

한동안 사흘이 입길에 올랐습니다. 사흘을 '4일'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사흘을 4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웃었는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좀 놀랐습니다. 사흘의 '사'와 4의 혼동이겠네요. 왜 혼동되게 만들었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그것도 어이 없지만 재미있는 일입니다. 갑자기 병사의 계급 순서를 '일병, 이병, 삼병'이라고 했다는 사람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것도 농담이었겠지요.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순우리말 수사와 한자어 수사가 비슷해 보이는 것에는 '이틀'도 있습니다. 이틀과 2가 닮아있습니다. 요즘에는 2틀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흘과 4를 더 혼동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을 잘못 들어서 4일로 들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흘의 뜻을 '4일'로 알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과장이 있는 듯합니다. 아무리 국어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한자어 수사는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이십, 삼십, 사십' 등이지만 순우리말 수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등으로 전혀 다릅니다. 한국어의 계통을 말할 때 다른 언어와 우리말 수사의 일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한국어와 제일 비슷하다는 일본어도 수사는 한국어와 전혀 다릅니다. 또한 한국어의 수사는 뒤의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모양이 약간씩 바뀌기도 합니다. '한, 두, 세, 네, 스무' 등이 그렇습니다. '석, 낙, 닷' 등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순우리말에서 수를 나타내는 말은 날짜를 셀 때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옛새, 이레, 여드레, 아흐레, 열흘 등입니다. 하루를 제외하고는 뒤에 '흘'이나 '새, 예'가 붙어있습니다. 새와 예는 서로 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닷'이나 '옛'에 '예'가 붙은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수를 나타내는 '일, 사, 나, 닷, 옛, 일, 여덟, 아홉, 열'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며칠이라는 말의 어원도 '몇 일'이 아니라 '몇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일'이라고 쓰지 않고, '며칠'이라고 쓰는 겁니다.

순 우리말 수사를 정리해 보면 '하루와 하나', '둘과 일', '셋과 사', '넷과 나', '다섯과 닷', '여섯과 옛', '일곱과 일', '여덟과 여덟', '아홉과 아홉', '열과 열'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봐도 대부분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모습으로는 '둘과 일'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일'의 경우는 '이듬해'와 관련성이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정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과 사', '넷과 나'는 달라 보이지만 '사나흘'과 '서너 개'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와 서, 나와 너가 모음이 교체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음이 교체되어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예는 우리말에 아주 많습니다.

'사'가 3의 의미로 쓰이는 재미있는 예는 동물의 나이를 셀 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동물의 세 살을 의미하는 말이 사름입니다. 한 살은 하루, 두 살은 두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의 '하룻'이 사실은 하루가 아니라, 하루이라는 연구도 재미있습니다. 즉, 한 살 먹는 강아지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젊으면 용감하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흘에서 시작한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우리말 수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본어의 수사는 지금의 우리말과는 닮지 않았지만, 고구려의 수사와는 매우 닮아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수사는 바로 '마흔과 쉰'입니다. 다른 단어와 연관성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사에도 수수께끼가 한 가득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아버지 관엔 물만 가득했다" 여든 아들의 사할린 비극

올해로 광복 75년. 일제 수탈에 배가 곪던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끌려가야 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780만 명. 푸르게 싱싱한 스무 살 안팎 조선의 청춘들은 암울했던 한국 현대사의 어둠을 지나며 죽거나 다치거나 살아서 돌아왔다. 그리고 75년이 흘렀다. 겨우 걸음마를 떼던 돌집이 아들이, 어머니 배 속에서 유복자로 태어나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그리며 살아온 딸이 이제는 백발이 휘날리는 노년이 돼 늙어 간다.

아버지 없이 살아내야 했던 유가족들의 가족사 75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메말라버린 눈물의 고백이 아니다. 만날 수 없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살아야

광복 75주년 한수산의 기록-일제 강제동원, 빼앗긴 가족들

"아버지는 5남매의 셋째였습니다. 형제 중에 누구든 하나는 가야 하니, 내가 가 고생하고 오나라 해서 끌려갔다고 하는데, 내가 네 살 때 일이라 어디로 가셨는지도 모르면서 '훗카이도에서도 3000리 떨어진 먼 곳'으로 갔다고, 그렇게만 알고 컸지요."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이석동 씨의 아드님, 이희권(80)씨의 회상은 담담하게 이어졌다.

해방을 맞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젊은 아내는 달 밝은 밤이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냇가로 나가 흰 사발에 물을 떠놓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빌었다. 어린 아들 이희권 씨의 가슴에 각인된 이 모습만은 세월에도 녹슬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큰아버지를 따라 먼저 피란길에 나선 아들과 어머니는 길이 엇갈리면서 행방불명. 모자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는 생이별을 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하루아침에 외톨이가 된 아들은 큰아버지 집에서 더부살이로 자랐다.

"왜 학교도 보내주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국민학교도 중퇴하고 농사일만 했으니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되었지요."

1965년 10월 육군을 만기 제대하고 돌아온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출했다. 들고 나갈 가방조차 없어 군에서 제대할 때 메고 온 군용백에 짐을 싸 서울역에 내렸고, 노숙으로 버텼다.

일자리를 찾아 나선 끝에 한강변 구의동의 벽돌공장에서 홀로서기가 시작됐다. 벽돌을 짚어낸 어깨와 등판이 짓무르는 고통을 견뎌내고, 냉동식품 수출회사 풍양산업에 입사, 회사에서 만난 여사원 이영화씨와 짝사랑이 결혼까지 이어졌다. 어느새 그의 나이 스물아홉, 꽃보다 고운 신부는 스물두 살이었다. 결혼식에서 신랑·신부의 절을 받은 분이 작은어머니였다. 부모가 없다는 상실감과 나는 혼자였구나 하는 서러움이 밀려들었다.

"왜 이분이 절을 받아야 하는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아버지·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는데..."

했던 그들에겐 통절한 고난, 마침내 이룩한 인간 승리의 장엄함이 혼재한다. 아버지의 유해를 먼 해외에서 모셔오고, 유가족 배상운동에 몸 바쳐 싸웠지만 노년에 찾아온 건 빈손의 가난뿐. '위안부 할머니에게도 딸은 있습니다' 눈물로 뒤영키는 회상도 있다. 아버지가 두려워한 남양제도의 망망한 바다에 꽃을 바치는 그들의 주름진 얼굴은 우리 역사의 거울이다.

일제강점기 피해자 유가족, 그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들은 어떻게 세월을 견뎌내고 살아남았는가. 파란의 한국사 그 공간의 씨줄과 시대의 날줄 속을 지나온 유가족의 지난했던 삶의 궤적을 작가 한수산이 찾아간다.



네 살 때 헤어져 끝내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떠내온 아버지. 아들 이희권씨에게 남은 것은 빛 바랜 편지와 사진 몇 장 뿐이다. 임현동 기자

얼마나 슬프던지." 비 내린 땅도 언젠가는 마르리라 믿었다. 만아들에 이어 둘째가 태어났고, 조금씩 살림도 일궈나갔다.

돈을 벌기 위해 대림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 해외 건설현장에도 다녀왔고, 귀국 후에는 영인운수의 좌석버스 기사가 됐다. 가장으로서 '그저, 바르게, 열심히만 살자' 그 생각 하나뿐이었다. 어느날, 6촌 조카가 놀라운 연락을 해왔다. 아버지가 사할린에 살아계신다는 것이었다. 월간지 <마당> 1980년 4월호에 조양욱 기자가 쓴 기사였다. 경기도 파주 출신의 이석동씨. 고향 떠난 지 38년, 네 살 때 헤어진 아들의 소식을 묻고 있었다.

'희권이 잘 자라서 성인이 됐는지? 잘 컸으면 지금 42세가 됐을 것이다. 희권이 모친도 살아 있는지?' (다음 호 계속) (출처: 중앙일보, 2020.08.14)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이후 2시간 동안 '춤추는 만화경' 디스코텍이 진행돼 블루스, 로큰롤, 디스코, 탱고 등 다양한 춤사위로 자신의 춤솜씨를 발휘해볼 수 있었다고 코르사코브 행정부가 전했다.

В Корсакове прошел танцевальный вечер

Семь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Корсаков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14 августа провели на городской площади имени Ленина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танцевальный вечер "Живи, танцуй". Он собрал вместе более 50 участник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остарались создать хорошее настроение яркими платьями, дополняющими образ аксессуарами, улыбками и, конечно же, танцами. И у них это получилось.

В ходе вечера жители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вальсом, блюзом, полькой, кадрилию. "Гвоздем" программы стали два общих танца: в этих номерах выступали как участники коллективов, так и все желающие.

Завершилось двухчасо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дискотекой "Танцевальный калейдоскоп", где можно было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в так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как блюз, рок-н-ролл, диско, танго и други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орсаков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ахалин 자선가들 아동들에게 놀이기구 티켓 선물

8월15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에서 '맑은 날 옷자' 전 러시아 자선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사할린의 자선가들이 생활환경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시공원 측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자선행사는 벌써 12번째 열리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도시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해 대규모 콘서트를 열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춤과 노래 예술단 10팀이 주변 사람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공원 무대에 출연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 놀이기구의 티켓을 구매하고

〈햇살 적립〉에 기부할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역 사회지원센터는 티켓을 결산해 이를 전달했다. 이 정기행사는 생활환경이 어려운 아동들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최 측은 빛나는 기념일이 아동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햇살 같은 미소로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지길 기대했다.

Неравнодушные сахалинцы подарили детям билеты на аттракционы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15 августа состоялась Всероссийска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кция «Улыбнемся солнечному дню!». В рамках ее неравнодушные островитяне помогли детям,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такая акция проходит уже в двенадцатый раз. В этом году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сделали большой концерт. Десяток танцевальных и вокальных групп из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вышли на сцену, чтобы поднять настроение всем окружающим.

Во время мероприятия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мог купить в кассе парка билет на любой аттракцион и положить его в «солнечную копилку». После того как мероприятие закончилось, билеты пересчитали и передали в центр соцподдержки региона. А т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кажут адресную поддержку нуждающимся ребятам.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деются, что яркий праздник порадует их и осветит лица солнечными улыбками.

(사할린주, 러시아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에서)

Женщина 68 лет, проживающая в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знакомится с мужчиной 1944-1945 г.р. и старше, для выезда на ПМЖ в Републику Корея. Тел: 89242804045.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는 68세의 동포 여성이 영주 귀국을 위해 1944-1945년생, 또는 그 이전 출생의 남성과 만남을 원함. 전화 89242804045.

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7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SAKH.COM • БИЛЕ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сах.ком](http://bilet.sakh.com)

Google play App Store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